



# 프랑스 전통 초콜릿의 유산 *à la Reine Astr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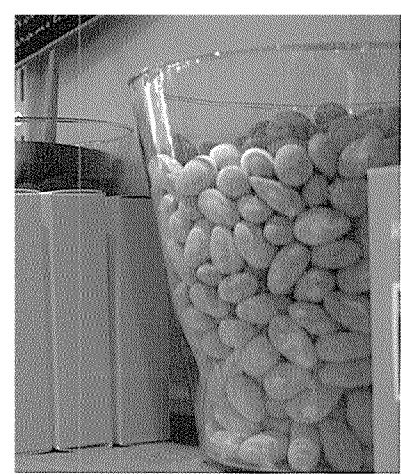
프랑스는 정통 제과의 나라답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점포들이 많다. 파티세리, 블랑제리, 쇼콜라트리 등으로 나뉜 이들 점포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개성으로 고객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다. '쥘 인 프랑스'는 프랑스를 넘어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점포를 소개하는 코너로 이번호에서는 최고급 초콜릿을 선보이며 프랑스 전통 초콜릿의 유산으로 불리는 '아라헨스 아스트리드(à la Reine Astrid)'를 소개한다.

글과 사진 김영주



벨기에의 여왕이었던 '아스트리드 여왕'을 떠올리게 하는 가게 이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래 벨기에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하지만 아라헨스 아스트리드는 프랑스 전통 초콜릿을 선보이는 쇼콜라트리이다. 아라헨스 아스트리드는 페르난도 고베르트가 유명한 쇼콜라리에인 자신의 아버지가 만들어낸 전통 초콜릿을 선보이기 위해 문을 연 곳이다.

페르난도 고베르트가 쇼콜라트리 오픈을 준비하던 1935년, 스웨덴의 공주로 벨기에 레오폴드 3세와 결혼해 벨기에의 여왕이 된 아스트리드 여왕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일어났다.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았던 아스트리드 여왕의 사고 소식은 많은 사람들을 슬픔에 잠기게 했고 페르난도 고베르트 역시 몹시 슬퍼했다. 아스트리드 여왕을 깊



1 카카오와 노르망디의 신선한 크림을 이용해 만든 가나슈가 들어 있는 생트러플. 2 파리 웨르쉐 미디에 위치한 아 라 헨느 아스트리드의 전경. 3 아 라 헨느 아스트리드의 상장이 된 오렌지색 패키지. 4 캐러멜이나 다크와 화이트 초콜릿 가루 등을 묻혀 만든 아몬드 제품들. 5 깃가지 선을 제품과 초콜릿이 진열된 아 라 헨느 아스트리드의 내부. 6 매장 한쪽 벽면에 아스트리드 여왕의 사진이 걸려 있다. 7 레몬과 오렌지 껍질을 길게 잘라 초콜릿을 입혔다. 8 매장에서 직접 수공으로 만든 6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봉봉 초콜릿. 매장 가운데에 진열되어 원하는 제품을 포장해서 판매한다. 9 초콜릿을 묻힌 오렌지 콩피.



“ 신선한 재료와 프랑스 전통 방식으로 ‘아스트리드 여왕’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최고급 초콜릿을 선보이고 있는 아 라 헨느 아스트리드는 ‘프랑스의 유산’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며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

계 존경하던 그녀는 여왕을 기념하기 위해 자신의 가게 이름을 'à La Reine Astrid(아스트리드 여왕)'으로 정하고 벨기에 법정에 편지를 보내 자신의 새로운 가게에 '아스트리드 여왕'의 이름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가게 오픈을 늦추면서까지 아스트리드 여왕의 이름을 쓸 수 있도록 허락이 내려지길 기다린 그녀는 '아스트리드 여왕'의 이름에 걸맞는 최고의 제품을 선보인다는 조건으로 아 라 헨느 아스트리드라는 이름의 매장을 오픈하게 된다. 그녀는 벨기에 왕실의 도움을 받으며 쇼콜라트리를 운영하는 유일한 사람이 됐다.

아 라 헨느 아스트리드는 다른 재료가 첨가되지 않는 순수한 카카오와 노르망디에서 생산된 신선한 크림 등 최고의 재료를 이용해 프랑스 전통 방식으로 만든 초콜릿을 선보이며 순식간에 유명해졌다. 매장에서 전문 쇼콜라티에가 직접 만들어낸 깃가지 봉봉 초콜릿, 캐러멜을 씹은 당과, 부드러운 누가, 오래된 방식으로 만들어낸 프랄리네와 가나슈 등이 아 라 헨느 아스트리드를 유명하게 만든 제품들이다. 아 라 헨느 아스트리드는 이제 지역 주민들의 약속 장소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일본 관광객을 실은 버스가 의례 멈춰서는 관광지이자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파리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한번

씩 들르는 유명한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아 라 헨느 아스트리드의 명성은 페르난도 고베르트 이후 3대 운영자인 쥘비비에브 살몬에 이르기까지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쥘비비에브 살몬은 1998년 아 라 헨느 아스트리드를 인수한 후 프랑스의 전통 방식으로 선보이고 있는 최고급 초콜릿을 좀더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녀는 파리 워싱턴 거리에 있는 가게 뿐 아니라 웨르쉐 미디 거리에 2호점을 내고 런던에도 3호점을 오픈 했다.

또한 쥘비비에브 살몬은 아 라 헨느 아스트리드의 상장이 된 오렌지색 패키지에 60여 가지의 초콜릿 제품에 대한 설명이 적혀진 조그만 메뉴를 넣은 봉투를 넣어 함께 포장하는 등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데 더욱 주력하고 있다. 그녀가 제작한 오렌지 상자에 가장 인기 있는 초콜릿만을 골라 담은 제품은 현재 '유산 박스(Prestige Box)'라는 이름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신선한 재료와 프랑스 전통 방식으로 '아스트리드 여왕'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최고급 초콜릿을 선보이고 있는 아 라 헨느 아스트리드는 '프랑스의 유산'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며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